



주 제:	“일어나 비추어라”	“주님 공현 대축일”	2008년 1월 6일
복음 묵상:	마태 2,1-12	이사 60,1-6	에페 3,2. 3 나. 5-6

내가 주님으로 믿어 고백하는 그분이 바로 모든이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분을 온 몸을 다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데는 소홀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한 가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있던 동방의 박사들은 유난히 큰 밝은 별이 하늘에 나타나 사방을 비출 때 그들은 위대한 임금이 탄생한 줄 믿고 그 별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먼 길을 떠날 때 별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희망과 기쁨을 안겨다 주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먼 여행에서 오는 피로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이 마침내 구세주와 만나고,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귀향하게 되는 그 여정은, 하느님 섭리의 여정였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동기로 인해 현존하시는 그분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경우에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가, 기도나 강론 피정, 교육등을 통해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고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뵈고, 헤로데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길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에게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대구김명섭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감사의 말씀

새해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해에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행사로써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모든 단원가족님들과 지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 이 해 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지난해에 부족했던 점들을 보다 잘 보강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자 조출한 자리를 아래와 같이 준비 하였오니,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오시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 래

언제: 1월 6일(일) 교중 미사 후 (12:00)

어디서: 가주 부페



성심 성가대 임원 일동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1분 명상

“ 새해 아침에 /이 해인 ”

창문을 열고 밤새 내린 흰 눈을 바라 볼 때의
그 순결한 설레임으로

사랑아 새해 아침에도
나는 제일 먼저 네가 보고 싶다

늘 함께 있으면서도
새로이 샘솟는 그리움으로 네가 보고 싶다

새해에도 너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나고
가장 정직한 시를 쓰고
가장 뜨거운 기도를 바치겠다

내가 어둠이어도 빛으로 오는 사랑아
내 손목을 잡고 가는 눈부신 사랑아
겨울에도 돌아나는 내 가슴 속 푸른 잔디 위에
노란 민들레 한 송이로 네가 앉아 웃고 있다

날마다 나의 깊은 잠을
꿈으로 깨우는 아름다운 사랑아
세상에 너 없이는 희망도 없다 새해도 없다

내 영혼 나비처럼 네 안에서 접힐 때
나의 새해는 비로소 색동의 설빔을 차려 입는다

내 목은 날들의 슬픔도 새 연두 저고리에
자주빛 끝등을 단다 아름다운 사랑아

